

# 서울사이버대학교 2025학년 제29기 해외역사문화탐방

장소: 베트남(하노이, 하롱베이) 3박5일

## 제1일 (11/26, 수)

\* 하노이 도착 및 문화 체험

호안끼엠 호수 방문, 36거리 스트리트카 체험

참석자 교류 세미나

1

2

3

4

5

## 제2일 (11/27, 목)

\* 교육 교류 및 하롱베이 이동

베트남 PTIT 대학교 방문 (서울사이버대학교 MOU 대학)

하롱베이 야시장 탐방

## 제4일 (11/29, 토)

\*역사 탐방 및 귀국 준비

바딘광장, 호치민 생가, 한기둥 사원, 문묘

호아로 수용소, 하노이 기차길. 베트남 전신 마사지 체험

## 제3일 (11/28, 금)

\* 하롱베이 문화탐방

하롱베이 유람선 탑승, 하롱베이 비경 탐방

## 제5일 (11/30,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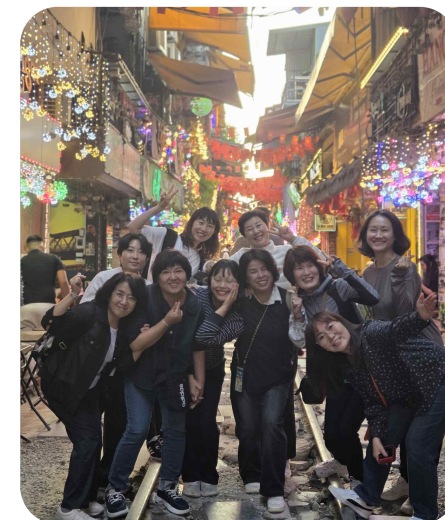
05:40 인천국제공항 도착



① 인천공항 - 여정의 시작



② 36거리 스트리트카 체험



③ 하노이 기차길

① 날밤을 꼬박 새고 설렘을 안은 채 새벽 4시에 집을 나서 6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여행 전 발대식에서 인사를 나누어, 조금은 익숙한 얼굴들을 다시 보니 반가웠다.

② 베트남에서의 첫 일정인 36거리는 11세기부터 형성된 상업지구로, 면적만 약 100헥타르에 달한다고 한다. 천천히 걸으며 구석구석 보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스트리트카를 타고 둘러 보았다. 좁은 골목마다 끊임없이 오가는 오토바이와 차량이 뒤엉켜 극심한 혼잡을 이루었고,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와 매연은 절로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그런데도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묘하게 '나름의 질서'가 보이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③ 이어서 일정을 조금 앞당겨 하노이 기차길로 향했다. 철로를 따라 현지 주민들의 집과 카페가 몇 인치 간격으로 밀착해 서 있어 매우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정말 이곳으로 기차가 지나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가까웠지만, 아쉽게도 시간대를 맞추지 못해 실제로 기차가 지나가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그래도 불빛으로 가득한 거리에서 꽃보다 환하게 웃던 학우들의 모습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 사진을 보고 있으면 그때가 떠올라 마냥 행복해 진다.





PTIT대학은 베트남의 정보통신 기술(ICT) 분야를 선도하는 국립대학으로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는 명문대학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와 PTIT대학은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2 공동학위 과정을 통해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의 IT 및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파트너 관계다.

각 학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친 후, 참석자 한명 한명에게 기념 선물을 증정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학교 시설을 둘러보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최첨단 디지털 교육 환경을 갖춘 만큼, PTIT 대학교의 시설 자체는 큰 감흥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인상 깊었던 것은 학생들의 모습이였다.

교실이 유리로 되어 있어 학생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외부에서 볼 수 있었는데, 반짝이는 눈빛에서는 학업에 대한 강한 집중력과 열정이 느껴졌다. 복도를 지나가다 만난 또 다른 학생들은 바닥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 번역기를 통해 물어보니 친구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했다.

3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친구에게 줄 종이학과 종이별을 접던 그 시절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최신 IT 기술을 배우는 대학생들이 여전히 종이 공예로 친구를 축하하는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었다.







① 하롱베이 유람선



② 선상 특식



③ 대나무 쪽배로 라굴 랑형



④ 석회암 동굴

사진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장엄한 하롱베이의 비경을 배경으로 즐긴 유람선상의 만찬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갯 잡은 싱싱한 다금바리 회와 함께, 베트남 해역의 풍부한 맛을 담은 통통한 새우, 달큰한 살이 가득 찬 각종 갑각류가 먹음직스럽게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눈으로는 절경을, 입으로는 바다의 신선함을 만끽하는 셋째날의 일정이다.







① 바딘광장의 호찌민 묘소



② 호찌민 생활관



③ 호이로 수용소 입구 및 독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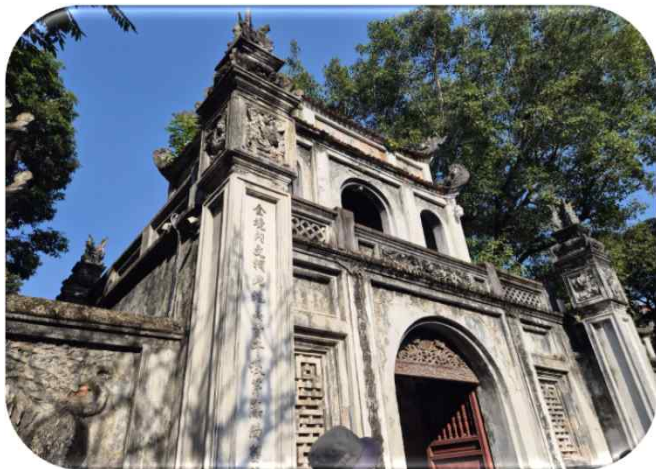
바딘 광장의 웅장한 **호찌민 묘소**(死後)와 그 옆 소박했던 **생활관**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청렴함과 헌신의 가치를 생각하게 했다.

한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뛰어난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1896년 프랑스 식민 정부가 베트남의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기 위해 세운 **호아로 수용소**에서 고초를 겪었던 수많은 영웅들의 존재가 있었다.

호아로 수용소에서 마주한 독립운동가들의 고문 흔적과,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좁은 독방 안에서도 자유를 향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던 강인함은 그들이 독립을 향한 투쟁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이다. (마치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대한 독립의 열망처럼)

최고 지도자의 청렴한 리더십과 낮은 곳에서 피어난 국민의 숭고한 희생이 만나, 오늘날의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이루어 낸 것 같다.





① 목묘



② 공자



③ 중학교 졸업 촬영



④ 거북비석

1070년에 설립된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는 베트남 최초의 대학이자 지식의 전당이다.

거북비석은 과거시험에 합격한 진사들의 이름과 출신지를 새긴 비석인데, 시험 통과 점수나 등수에 따라 거북이 목의 높이가 다르다는 설명을 듣고는 목에 힘이 한껏 들어간 거북이, 움츠러든 목의 거북이를 보며 예나 지금이나 어느 곳에서나 ‘인생은 성적순이 맞는가 보다’라며 한참을 웃었다. 과거 베트남 엘리트 교육의 중심지였던 역사적 상징 때문인지 현재에도 학생들의 학업을 기원하거나 졸업 기념 촬영을 하는 곳으로 베트남의 교육열을 볼 수 있었다.

⑤ 기근(氣根)

뿌리가 땅을 뚫고 거꾸로 솟아오르는 현상: 기근. 나무의 뿌리가 물속이나 진흙 속에 잠겨 있으면 산소를 충분히 흡수하기 어려워 땅속에 있는 일반적인 뿌리(지하부)가 호흡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산소를 얻기 위해, 뿌리의 일부가 공기 중으로 솟아나와 산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나무들이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놀라운 적응 방식이다.





# 삶

'사랑'으로 뛰어도 좋습니다.  
'삶'으로 뛰어도 좋습니다.  
사랑의 준말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일생동안 경영하는 일의 70%가  
사람과의 일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 ▣ 해외 탐방을 마무리하며: 인연, 성장,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다짐

저는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국 수많은 인연과 관계의 직조로 이루어지듯이, 사회복지 현장 역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 상호작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모인 특별한 만남인 이번 해외 탐방은 제 삶에 들어온 다양한 사람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공동체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우들과 먹고, 자고, 이동하며 타지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체험한 모든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밤늦도록 서로의 꿈과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었고, 서로의 삶에 깊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새로운 동기 부여를 선사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주었습니다.

1980~90년대 우리나라를 보는 듯한 베트남의 높은 교육열, 특히 PTIT대학에서 만난 학생들의 열정과 순수, 빠른 경제 성장의 흐름,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서 느낀 선조들의 독립을 향한 강한 의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관찰한 여성의 경제 활동과 아동 노동과 같은 사회 복지적 이슈는, 한국에서 증가하는 베트남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다문화 복지를 실천할 때 여성 지원과 아동 보호를 고려한 가족 상담과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 얻은 공감과 이해의 폭을 바탕으로,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어 만날 수많은 삶들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동아리, 특강, 세미나, 문화예술 그리고 해외 탐방까지 20대의 오프라인 대학보다도 더 화려한 50대의 대학 생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대학 관계자분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하며 삶의 비전을 나누어주신 학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